

여는 시

첫웃음 터트릴 때부터
이빨 들은 사랑 없듯이
단지 이뿌리 끊어진년 잇몸이 있음 뿐

턱 돌아날 죽순부터
대창처럼 단단하지 않듯이
단지 함토희 비집는 뾰족한 끝이 있음 뿐

날 때부터 완벽한 사랑 누가 있으리오
다윈 어떻게 자라느냐
혼자 잘나 썩 자갈 이빨 버드강니 되고
혼자 득뿔장군 자라날 장죽 꺾어지면
그딴인 건.

못생겨도 가지런한 여려 이가 있어야 씹을 수 있듯
취청 나약해도 뭉쳐야 태풍도 억아내는 대나무숲처럼

대나무 뿌리 깊은 사랑으로 얼크러져
못났다 잘났다 목도 들어가며, 고쳐가며
왼쪽 어긋니 아프면 오른쪽 어긋니 씹어주며
더불어 살아 이빨 구실, 대나무 구실, 사랑구실 하지요

들어가며

먼저 97년 과여학생회장 되시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농대여학생회는 간부들 인선하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 파업투쟁을 함께하며 조금 바쁜 시간들을 보내느라 이렇게 늦게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여학생회장 되신 후 멀 해야 할지 고민 걱정하고 계시진 않는지 염려가 되네요.

예전의 여학생회장이 가지는 책임에 비해 요즘 학칙에 여학생회가 있으니 관성적으로 학생회장 선거할 때 같이 뽑는 식으로 여학생회의 존재가 유명무실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벗어나고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의 여학생회의 모습을 바꾸어 봅시다.

여학생회란

여성문제는 여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억압과 모순의 총체, 즉 여성이 자주적인 인간으로 서는 과정에서 나서게 되는 문제를 말한다. 여성문제는 생활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나타나는 것들이다. 의존적이고 모자란 것이 여성의 아픔 다음이냐 얘기되기도 하고 때로는 한사람에게는 벅찬 3중의 역할을 거뜬히 해내는 슈퍼우먼이 진정한 여성상이냐 묘사되기도 한다.

방송매체에서, 교육에서, 법에서, 노동현실에서 사회 어느 한구석도 빠지지 않고 여성에게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다. 또한 사회재생산의 의무와 동시에 낮은 임금과 열악한 환경으로 다시 공지에 몰려야 하기도 하고 자본논리에 의해 야

한 여자가 되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성폭력에 몸을 사리기도 한다. 이외에도 여성문제는 사회 곳곳에서 무수한 형태로 도사리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진리의 상아탑이고, 가장 민주적이라고 지칭되는 대학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다. 남대학생들의 경우에도 말론은 민주적인 여성들 또한 인간이라면서 떠들어 대지만 진정 그들은 여성들의 억압된 자주성의 쟁취의 문제에 있어서 여성들만의 문제인양 자신들의 권리를 빼기는 문제인양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여대생의 경우에도 자신의 일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일이나 과의 일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요즘 인기있는 드라마나 광고를 보면 우리사회의 여성의 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자기의 전문적인 일을 갖고 있으며, 더 이상 결혼에 얽매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여성상도 여성다움을 유지할 한도 내에서의 변화일 뿐이다.

예전에 여학생회에서는 소극적이고 개인적이며 결혼에 목숨 거는 여대생의 모습을 꼬집고 하였는데 이제는 복원여학생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찾기란 힘들다. 이제 대부분의 여학우가 졸업후 취직을 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과장이나 과대를 하는 여학생도 많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성실성이 좁은 범위에 제한 되어 있으며, 자기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집단과의 관계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남학생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인간관계와 사회 현실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설혹 기회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도전할 용기를 쉽게 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업난이 여대생에게로 가중되면서 장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지만 문제를 집단적으로 풀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학년이 되면서 개별화되는 경우가 많다.

여학생운동이란

바로 여학생이 주체가 되어 이러한 여성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말한다. 즉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고통과 억압과 착취를 거부하고 여성의 자주적 권리와 지향을 획득해 나가는 것이다. 여학생운동은 바로 억압과 착취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가를 명확히 인식하는데서 출발한다. 이러한 인식을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 여학생소모임, 여연이며 그것을 바탕으로 힘을 집중시켜 여학생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학생회이다. 여태까지의 성차별 교육봉건적 이데올로기 잘못된 사회구조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집단적인 몸부림들을 모아내고 또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학생회이다. 이러한 위상과 역할을 가진 여학생회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학생회와 이 관계를 잘 푸는 것이 중요하다. 과의 경우 어떠한 체계라 하더라도 매 사업속에서 학생회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서로간의 관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부문의 경우 여학생회는 학생회와 서로 보완하면서 내용을 풍부화 해야하며 자기 조직의 학우들을 학생회사업과 결합시켜야 할 책임을 가진다.

올해 농대 여학생회는

여성사랑으로 실천하는 자주적 삶,

와성에서 시작합니다.

사업기조

과여학생회강화

시작하나

여성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성사상으로 세상을 바꾸어 갑니다.

▲ 정신대 할머니 후원의 건설

가을걷이만 마당때마다 진행해오던 정신대 할머니 후원바자회 사업을 발전시켜 정기적인 후원사업을 고민합니다.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하는 소요집회를 참가하고 일일 모포, 바자회 등을 통한 강제적후원사업을 만들어 갑니다.

시작 둘

여학우의 삶에서 시작합니다.

강정, 갈등이 여인 맘때마는 여학우의 삶, 스스로 격벽에 나가는 여학우들의 삶이

자주적 여학생회를 만들어 갑니다.

▲ 농대여학생회의 특약소모임 건설(특약활동활성화)

응자부에 있었던 디딤사랑, 전심과에 있었던 디딤 후원을 강화하고 있는과에도 건설하고 올해에 건설이 힘든과는 농대소모임으로 묶어 내년 건설의 주제로 만들어간다.

▲ 과과여성문제연구소모임건설

올해 여학생회강화사업의 최대의 목표로 여성문제를 통한 과여학우들의 관심을 모아 단결력을 과시해 나가며 언제나 과 행사에 참석율이 저조함을 극복해 나갔으면 합니다.

▲ 대동학교 내설화

▲ 여학생회 소식지 '와성 여성'발간

▲ 농대2오관 여학생 후계실 관려 강화

나오미

여적인 책임의 내용입니다. 조금의 문제의식은 되었으면 하네요.

많은 열정을 속에서 충분한 내용을 만들어 갑시다.

2월 11일 여학본부학교에서 과여학생회를 위한 시간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른과도 과여학생회장들을 만나며 앞으로 열정을 그만할수 없는 시간이되었으면합니다.